

‘이정선 1호 정책’ 초등학교 ‘방학 중 급식’ 무산되나

시교육청, 올 여름 방학부터 도입
돌봄교실 초등생 등 1만여명 대상
노조와 갈등에 시행 여부 불투명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호 정책으로 내놓은 ‘초등학교 방학 중 급식’ 정책이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급식 종사자의 상당수가 포함된 노조와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올 여름방학부터 도입할 계획이었던 방학 중 급식의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초등학교 방학 중 급식’ 정책은 일선 초등학교 여름방학 시기에 따라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시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점심 시간에 음식을 사 먹거나 도시락을 가정에서 싸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돌봄 가정 학부모들의 급식 고충을 해소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 교육감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여름·겨울방학 중 급식 예산으로 올해 6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대상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00여명과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생

4,100명(126곳) 등 1만 100여명이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지역 교육 관련 노조들이 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방학 중 급식’이 시작 전부터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교 영양사와 조리사 등의 동의는 급식이 이뤄질 수 없고, 상당수 급식 종사자들이 노조에 포함돼 있어 대체 인력을 동원하기도 무리인 상황이다. 초등학교 조리원 735명 가운데 219명이 동의를 구해야만 방학 중 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급식 대상자 70명 이하는 조리원 1명을, 200명 이하는 2명, 200명 이상은 3명의 조리원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에서 방학 중 급식 인원이 적기 때문

에 인원이 적을 경우 순환 근무를 하겠다는 대책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더군다나 일선 초등학교에서 이달 말부터 급식하려면 방학에 돌입하기 전 식자재 공급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는데 노조 등과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방학 중 학생 학교급식 제공 지침을 각 학교에 일방적으로 하달했다”며 “또, 급식실의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명의 폐암 산재 환자가 최근 발생했지만 그 어떠한 개선 의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급식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노동자

의 생명과 안전보다 공약만을 우선시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의 독단적 정책 추진이 빚어내는 광주교육의 퇴행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각 주체와 충분한 검토, 철저한 준비 없이 독단이 계속된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인수위 차원에서 급식 검토과정 중 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임금근로조건 등을 놓고 의견 수렴이 미흡해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방학 중 급식은 초등학교의 여름방학 시작 시기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고, 방학 중 급식인원이 적어 순환 근무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동구평생학습관 수강생 작품전. 광주시 동구는 동구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도자기핸드페인팅 등 67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작품 1,000여 점을 동구청 1층 로비에서 오는 8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동구 제공

주민직선 3기 전남교육 사업 “상당수 손본다”

준비위, 창의융합교육 재검토
전남교육 대전환 준비위원회가 전남 22개 시군마다 구축하려는 창의 융합교육관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직선 3기에서 추진해왔던 주요 사업들도 상당수 폐지되거나 재검토를 통해 수정·보완될 전망이다.

준비위원회는 6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갖고 기존사업 일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개선 방침을 밝혔다. 준비위는 “40여개 주요사업 분석 후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15개 사업을 개선사업과 검토사업으로 김대중 도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며 “계승과 혁신의 원칙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전남교육청에서 진행중인 기존사업 가운데 전남 22개 시군마다 구축되고 있는 ‘창의융합교육관 설치’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22개 시군에 일괄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권역별 설치가 바람직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던 ‘초중 통합운영학교’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재 통합이 결정된 초중 통합학교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환준 기자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광주경찰, 교통시설 개선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광주·전남 경찰은 보행자의 보행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 활동과 함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6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제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에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교통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개정법 시행일에 앞서 지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조유나양 부모 우울증 진료받았다

실종된지 한달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조유나양(10) 일가족의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양의 부모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조양 아버지 조모씨(36)와 어머니 이모씨(35)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한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사생활 영역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머니 이씨가 지난 4월, 5월 각 1차례씩 광주 한 의료기관에서 수면제를 처방 받은 것과는 다르게 추가 수면제 구매 내역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조양과 그의 부모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 한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고 학교에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체험학습 기간이 지났지만 조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은 지난달 22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송곡항 일대를 집중 수색해 가족의 차량과 일가족 시신 3구를 수습했다. 아버지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1억3,000만원을 투자했고, 이 가운데 2,000만원을 손해본 뒤 1억 1,000만원을 인출해 회수했다. /민찬기 기자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h3>상무지구(상가매매)</h3> <p>1) 감평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4천)</p> <p>3) 평수140평, (전용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시설완비)</p>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p>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광주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시외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p>
--	---	--

010-6670-9800 (062-382-5500)